

경찰서비스를 경험한 시민의 만족도가 경찰신뢰에 미치는 영향: 북한이탈주민을 중심으로

홍문기¹, 박종선^{2*}

¹한국형사정책연구원 조사연구원, ²가천대학교 행정학과 부교수

The Effect of Police Satisfaction on Trust in the Police: Focusing on the North Korean Refugees

Moonki Hong¹, Jongsun Park^{2*}

¹Researcher, The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²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Gachon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범죄 피해신고 과정에서 접촉했던 경찰관의 조치에 대한 만족이 경찰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을 연구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방법을 이용했다(N = 214). 다중회귀분석 분석에 의하면, 자신의 피해 신고에 대한 경찰관의 조치에 대하여 불만족을 느꼈던 탈북자들은 남한경찰 활동에 대해 낮은 신뢰를 보였다. 또한 주변 사람들에 대한 높은 신뢰를 보이는 탈북자들은 남한 경찰활동에 대해서도 높은 신뢰를 보였으며, 범죄피해를 경찰에 신고한 경험이 있는 탈북자들은 남한 경찰활동에 대해서도 높은 신뢰를 나타냈다. 주거지역의 범죄 발생이 증가한다고 인식한 탈북자, 여성탈북자, 남·북한 학교의 재학, 자동차 소유 등은 경찰 활동에 대해 낮은 신뢰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주민응대 교육프로그램과 법률 교육 개발 및 강화 등을 정책적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주제어 : 경찰신뢰, 범죄피해, 시민-경찰접촉 만족, 이주민 집단, 북한이탈주민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whether citizen's satisfaction with police response to their victimization has an effect on the trust in the police. The data (N = 214) were collected from the North Koreans refugees residing in South Korea. One key finding shows that the North Koreans who were dissatisfied with policemen's response to their crime victimization cases report lower trust in the South Korean police. Also, the people who had ever reported a crime to the police increase their trust in the police. However, sex, education experience, car ownership, household victimization preventive measures, crime trends decrease their trust in the police.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were discussed for the future research.

Key Words : trust in the police, crime victimization, the quality of the citizen-police contacts, immigrants, the North Korean refugees

*Corresponding Author : Jongsun Park(pjs751101@gachon.ac.kr)

Received July 31, 2020

Revised August 10, 2020

Accepted September 20, 2020

Published September 28, 2020

1. 서론

경찰 신뢰라는 하나의 주제에 대하여 국내 학계는 다양한 연구를 발표해 왔다[1-7]. 그러나 선행연구의 대부분은 대한민국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주민 집단의 대한민국 경찰에 대한 신뢰를 주제로 한 연구는 아직 부족하거나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는 경향이 있다[4, 8]. 외국 연구로 눈을 돌려보면, 이민자 또는 소수 집단의 경찰에 대한 신뢰도를 분석한 연구가 미국을 중심으로 여러 국가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9]. 그러므로 새로운 치안 서비스 대상자인 이주민 집단을 대상으로 한국 경찰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국내 이민자 집단 중에서 탈북자들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 대한민국 사회 내 탈북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 때문에 본 연구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다른 이주민들처럼 탈북자들도 경제적 이유로 한국행을 선택하고, 한국 사회에서는 소수집단에 속한다[10, 11]. 그러나 남북한의 특수한 역사적인 관계 때문에 탈북자들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 등의 부정적 인식이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혀 있으며, 남북관계의 급격한 변화는 고질적인 선입견을 더욱 악화하기도 한다. 이러한 특수 상황에서 탈북자들이 우리나라 경찰에 대한 신뢰가 없거나 부족하다면, 범죄피해를 당하더라도 경찰 신고를 꺼려할 가능성이 클 것이다. 결과적으로 2차 범죄피해를 불러오거나 공권력의 도움 없이 범죄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범죄 가해자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국내에 거주하는 탈북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경찰과 원활한 소통과 경찰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자신의 범죄피해 신고를 처리한 경찰관의 태도에 대해 느꼈던 탈북자들의 만족감이 대한민국 경찰 신뢰도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 분석할 것이다.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경찰접촉 과정에서 느꼈던 만족감이 경찰 신뢰도에 주는 영향력에 관한 연구는 이미 여러 차례 발표되었다[1, 2, 3, 6]. 그러나 본 연구 주제를 바탕으로 국내 거주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매우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본 연구와 선행연구 사이의 차별성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

2.1 경찰 신뢰도의 개념

일반시민의 경찰에 대한 신뢰도는 포괄적이면서 광범위한 개념이다[12, 13]. Sun, Hu, Wong, & Li(2013)는 경찰 신뢰도를 광의적 개념, 협의적 개념, 미시적 개념 등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14]. 경찰 신뢰도는 여론, 인식, 태도, 평가 등으로 표현되는 시민들의 경찰에 대한 일반적인 판단과 감정을 반영하는 광의적이면서 중립적인 개념, 광의적 개념보다는 다소 축소된 인식 또는 태도로 표현되는 신뢰도, 만족도, 확신 등 경찰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인식을 반영하는 협의적 개념, 경찰 업무 수행이나 활동에 관련된 효율성, 존중, 공정성, 우선성, 청렴성 등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는 미시적 개념 등의 세 가지 단계로 구분한다. 그리고 세 가지 중 협의적 개념에 포함된 신뢰도가 경찰의 정당성을 나타내는 지표이고, 선행연구에서도 타당성이 검증되었기 때문에 경찰에 대한 일반시민의 인식을 연구하는 중심개념으로 설명된다. 그러므로 경찰 신뢰도는 국민 신뢰와 지지를 통해 확보된 경찰에 대한 정당성을 바탕으로 일반시민들이 준법의식을 내재화해서 경찰이나 지방정부 활동을 후원 또는 범죄예방활동을 자발적으로 활성화하는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다[15].

지금까지 언급한 경찰 신뢰도는 대한민국 일반시민에게 적용되는 개념이다. 그렇다면, 같은 언어와 문화를 공유하고 있지만, 북한과 같이 전혀 다른 환경 속에서 성장한 탈북자 출신 이주민들에게는 경찰 신뢰도가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대한민국과 같은 민주사회에서 경찰은 국민으로부터 주어진 정당성에 의존해서 활동하는 조직이며, 일반시민의 신뢰 또는 지지는 경찰 활동에 필수요소이다[16]. 그러나 1인 독재 강화, 전체 북한 주민 통제 등이 주요 임무인 인민보안성의 이미지에 익숙했던 탈북자들에게는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정당성을 바탕으로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 국가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치안 제공이 주요 임무인 대한민국 경찰의 이미지가 낮설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대한민국의 경찰의 범죄예방 및 체포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를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경찰 신뢰도를 설명하는 다양한 요인들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2.2 경찰관 접촉 경험 요인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선행연구는 접촉유형에 상관없이 접촉과정에서 보여준 경찰관의 행동 또는 태도에 대한 만족도가 경찰에 대한 신뢰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난다[2, 3, 12, 17, 18]. 자신의 정보요청을 담당 한 경찰관의 태도에 대한 불만족을 보인 시민들은 경찰에 대해 낮은 신뢰감을 보이지만, 같은 상황에서 만족감을 보인 시민들은 경찰에 대해 높은 신뢰감을 보인다[12]. 경찰관 접촉 경험을 자발적 경찰접촉에 대한 만족/불만족, 비자발적 경찰접촉에 대한 만족/불만족을 나타내는 이항변수 4개로 분류한 선행연구[17, 18]에서는 자발적 경찰접촉 과정에서 경찰관 태도에 불만족을 표현한 사람들은 경찰에 대해 낮은 신뢰를 나타냈으며, 동일한 과정에서 만족을 경험한 사람들은 경찰에 대해 높은 신뢰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자발적 경찰접촉 과정에서 경찰관 태도에 불만족을 표현한 사람들은 경찰에 대해 낮은 신뢰를 보였다.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 대부분은 경찰 접촉유형 또는 빈도가 경찰 신뢰도에 주는 영향력을 측정했다[19, 20].

2.3 통제변수 요인

경찰 신뢰도를 설명하는 모형을 도구적 시각과 표현적 시각으로 두 가지로 분류해서 설명한다[15, 16]. 먼저, 도구적 시각은 사회 구성원들이 범죄 발생 및 피해의 책임을 경찰에게 있다고 보고 있으며, 경찰 핵심 업무인 범죄와 관련된 결과가 좋으면 경찰 신뢰도가 높다고 설명하는 이론이다. 선행연구에서는 자신이 거주하는 공동체의 무질서 정도가 높다고 생각하는 일반 시민들은 주거 지역 경찰의 검거 활동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한다[1, 17].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타난다. 범죄 발생률이 높고 사회적·물리적 무질서가 심각한 공동체에 거주하는 이민자들은 안전한 공동체에 거주하는 이민자들보다 낮은 경찰 신뢰도를 보인다[20].

표현적 시각은 지역 주민들의 사회적 결속력(social cohesion)이나 사회의 도덕적 질서 수준(social and moral order)이 경찰 활동보다 경찰 신뢰도에 더 큰 영향을 끼친다고 설명한다는 이론이다[13, 16]. 사람들이 지역에 대한 유대가 약해지고 질서를 지키는 의식이 희박해지게 되면, 이에 관한 결과로 낮은 경찰 신뢰도가 나타난다고 한다[16, 21]. 국내 거주 중국인과 조선족을 연구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대한민국 사회에 대한 유대가 높다고 응답한 외국인들은 한국 경찰에 대해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4].

동화이론(assimilation theory)은 이민자들이 미국 중산층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미국 사회의 중·상류층이 공유하는 핵심 가치와 문화에 동화(assimilation)하

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22]. 동화이론의 내용을 반영한 연구에서는 이민자들이 체류국의 사회에 어느 정도 동화되었는지를 나타내는 동화의 정도(degree of assimilation)에 대한 측정변수로 이민 온 국가의 공용어 숙련도(language proficiency)와 체류 기간(length of residence)의 변수가 사용된다. 이민 온 국가의 공용어 구사 능력이 경찰 신뢰도에 주는 영향력에 관해 혼재된 연구 결과로 나타난다[23-26]. 이민국 체류 기간이 경찰 신뢰도에 주는 영향력도 역시 혼재된 연구결과가 보고된다[20, 23, 24].

일반시민 대상의 선행연구에서는 나이가 많을수록 경찰에 대한 신뢰가 높게 나타났지만[2, 27, 28, 29, 30], 이민자 대상의 연구에서는 연령과 경찰 신뢰도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없었다[19, 24, 25, 31]. 또한 일반시민을 연구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경찰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한다는 결과도 도출되었지만[1, 2, 6, 9], 이민자 대상의 연구에서는 혼재된 연구결과가 나타났는데, 남성이 여성보다 경찰 신뢰가 낮은 경우[24], 남성이 여성보다 경찰 신뢰가 높은 경우[26], 그리고 성별과 경찰 신뢰도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이 없는 경우 등이 있었다[31].

일반 시민뿐만 아니라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응답자의 교육 수준과 경찰 신뢰도에는 연관성이 없거나, 교육 수준이 높은 응답자들이 높은 경찰 신뢰를 보인다거나 교육 수준이 낮은 응답자들이 높은 경찰 신뢰를 보인다는 혼재된 연구 결과도 나타났다[1, 4, 19, 24, 25, 32, 33]. 교육 변수와 관련해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이민자들이 체류국에서 받은 교육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간과하는 경향이 보인다. 학자들은 교육을 통해서 시민의 권리와 자유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고, 자유주의를 중시하는 태도 때문에 경찰에 대해 낮은 신뢰를 나타낸다고 주장한다[9]. 탈북자들의 경우에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착지원프로그램의 혜택 때문에, 다른 이주민들보다 상급 학교 진학률이 높은 편이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 보면, 남한에서 받은 정식교육의 경험이 경찰 신뢰도에 주는 영향력을 탐구할 필요가 있다.

3. 연구 방법

3.1 연구 자료

본 연구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2006년에 수집한

국내 거주 탈북자들의 범죄피해 자료를 2차 분석했다 [34]. 회수된 총 254개의 설문 응답지 중에서 응답자의 나이가 20세 미만이거나 설문지 응답 내용이 부실 또는 응답자와의 연락이 어려운 상황에 해당하는 응답지 40부는 제외했다. 최종 표본 수는 214개이며, 남성은 91명(42.5%)이고, 여성은 123명(57.5%)이다. 표본의 대표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정부통계자료와 비교했다. 해마다 국내로 입국한 여성 탈북자 수는 남성 탈북자 수보다 항상 많았으며, 2019년 12월까지 누적 등록된 전체 탈북자 33,523명 중 남성은 9,363명(27.9%)이고 여성은 24,160명(72.1%)이다(통일부, 2019). 본 연구의 탈북자 전체 표본 중 49명이 남한 입국 후 범죄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사기 피해를 입은 탈북자 수는 45명(약 91%)으로 가장 많았고, 폭행 및 상해(2명), 대인 절도(1명, 약 2%), 성폭력 및 성희롱(1명, 2%)의 순서대로 나타났다. 거의 13년 전에 표집 된 연구 자료를 활용한 이유는 본 연구 자료의 주요 범죄피해 유형이 사기범죄와 관련된 것이며, 검증에 필요한 모든 변수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기 범죄로 인한 피해는 시대 변화와 상관없이 남한 사회에 익숙하지 못한 탈북자들에게 가장 많이 발생한 범죄피해 유형이다[36, 37].

3.2 변수 측정

3.2.1 독립변수

본 연구는 두 개의 독립변수를 분석모형에 활용했다. 첫 번째 독립변수는 남한 입국 후 발생한 자신의 범죄피해 신고를 처리한 경찰관 태도에 대한 탈북자의 만족을 나타낸다(0-그 이외, 1-만족). 여기서, "1"은 범죄피해 신고를 통해 경찰관과 접촉했고, 그 신고를 처리한 경찰관의 태도에 만족했다는 것을 나타낸다. 반대로 "0"은 경찰관 접촉과 만족도 중 하나만 해당하거나, 동시에 해당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 신고를 했지만, 경찰관의 처리 태도에 불만을 나타내는 경우, 범죄피해 경험이 있지만 신고하지 않은 경우, 비자발적 접촉을 통한 만족/불만을 나타내는 경우, 경찰관 직접 접촉은 없지만, 간접적인 접촉을 통해서 만족/불만을 나타내는 경우, 그 이외 경우 등이 포함된다. 나머지 독립변수는 범죄피해 신고를 처리한 경찰관 조치에 대한 탈북자의 불만을 나타낸다(0-그 이외, 1-불만족). 이항변수 활용은 본 연구 자료처럼 기타 경찰 접촉 유형에 대한 만족을 직접 측정하지 못한 자료의 한계점을 어느 정도 극복하게 한다. 또한, 이항변수 방법은 리커트 척도보다는 시민의 만족

과 불만족이 경찰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는데 유용하다.

3.2.2 통제변수

범죄피해 두려움을 나타내는 변수는 "선생님은 집 근처 거리를 밤에 혼자 걸을 때 얼마나 두려움을 느끼십니까?"와 "선생님은 밤에 혼자 집에 있는 상황에서 얼마나 두려움을 느끼십니까?"의 설문 문항을 활용했다(1-매우 두렵다, 2-두렵다, 3-그저 그렇다, 4-두렵지 않다, 5-전혀 두렵지 않다). 범죄피해 두려움이 크다면, 탈북자들은 자신이 거주하는 임대주택에 안전장치를 자비로 설치할 것이다. 따라서 범죄피해의 두려움을 간접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침입범죄를 예방하는 조치를 나타내는 "비디오 폰을 설치하였다", "담당 경찰서/파출소에 비상벨, 방범전화를 연결하였다", "민간경비회사와 경비계약을 맺고 있다"라는 문항의 합계 값을 사용하였다(0-그렇다, 1-아니다). 거주 지역 범죄발생 추세가 대한 변수는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최근 몇 년 사이 자신이 사는 동네의 범죄발생 추세가 어떻게 되었다고 보십니까?"의 설문 문항을 활용했다(1-크게 감소, 2-감소, 3-그저 그렇다, 4-증가, 5-크게 증가). 그리고 범죄피해 경험에 대한 변수는 설문 응답자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범죄피해경험까지 포함하였다(0-피해경험 없다, 1-피해경험 있다).

사회적 유대감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선생님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의 설문 문항을 사용했다(0-아니오, 1-예, 그렇다). 이민 온 국가의 공용어 숙련도와 체류 기간을 나타내는 변수는 "선생님은 현재 어느 정도 남한 말을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의 설문 문항과(1-전혀 알아듣지 못함, 2-어느 정도 알아들음, 3-거의 알아들음), 남한 입국 후 설문조사가 진행된 시점까지 남한 체류 기간으로 측정하였다(연속형 변수). 그리고 범죄피해 신고에 대한 변수도 포함되었다(0-경찰에 신고하지 않음, 1-경찰에 신고했음).

인구통계학적 통제변수로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탈북자의 만 나이(연속형 변수), 성별(0-남성, 1-여성), 학력 수준(1-소학교 또는 무학, 2-고등(중)학교, 3-대학교 이상), 남·북한 학교 경험(0-북한에서만 학교에 다님, 1-남한과 북한에서 학교에 다님)을 활용하였다. 탈북자들의 경제력을 측정하기 위한 변수들도 사용하였는데, 가정 월 평균 수입과 지출의 차이와 자동차 보유유무(0-응답자가족은 자동차가 없다, 1-응답자가족은 자동차가 있다)를 분석에 포함시켰다.

3.2.3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탈북자들의 대한민국 경찰에 대한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선행연구에서처럼 범죄피해조사 보고서 속의 설문 문항 3개를 사용했다[1, 38]. 측정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찰 또는 경찰활동에 대한 탈북자들의 긍정적 인식을 다각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복수 문항을 사용했다. 지난 일 년 동안 거주지역의 경찰에 대한 탈북자들의 인식으로 묻는 방법을 활용했으며, 경찰의 범죄예방 전문성, 범죄예방에 대한 경찰 노력의 적정성, 그리고 범죄 문제에 대처하는 전문능력을 나타내는 “우리 동네 경찰들은 순찰 활동을 잘하고 있다”, “우리 집에 범죄사건이 발생하여 신고하면 즉시 출동할 것이다”, “범죄사건이 발생하여 신고한다면 범인을 잡아 줄 것이다”의 3개 문항을 활용했다(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은 편이다, 3-그런 편이다, 4-매우 그렇다). 이 문항들의 합계 값을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Cronbach's Alpha = 0.786).

4. 연구결과

4.1 기술통계분석

분산팽창요인 값이 10 이상이면 다중공선성 문제가 발생한다[39, 40]. 가장 높은 독립변수의 분산팽창요인 값은 5.91이기 때문에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다. Table 1에서는 종속변수, 독립변수, 및 통제변수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for all Variables

Variables	Min.	Max.	Mean	Std. Dev.
<u>Dependent Variable</u>				
Trust in the Police	3	12	8.51	1.81
<u>Independent Variables</u>				
Satisfied	0	1	0.02	0.15
Dissatisfied	0	1	0.04	0.20
<u>Control Variables</u>				
Age	20	77	40.67	12.41
Sex	0	1	0.57	0.49
Education level	1	3	2.24	0.49
School attendance	0	1	0.19	0.39
Car ownership	0	1	0.16	0.37
Income & expenditure	1	3	2.32	0.83
Language proficiency	1	3	2.31	0.61
Length of residence	0	14	3.62	2.06
Victim experience	0	1	0.43	0.49

Trust in people	0	1	0.36	0.48
Crime reported	0	1	0.07	0.25
Fear of crime	1	5	2.71	1.13
Preventive measures	0	1	0.02	0.15
Crime trends	1	5	2.84	0.79

4.2 다중선형회귀분석

Table 2는 다중선형회귀분석의 결과를 제시한다. 자신의 범죄 피해신고를 처리한 경찰관의 태도에 대하여 불만족을 나타낸 탈북자들은 다른 경찰접촉으로 얻은 만족/불만족(자발적 경찰관 접촉에 대한 만족, 비자발적 접촉에 대한 만족/불만족, 경찰관 접촉에 대한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만족/불만족 등)을 나타낸 탈북자들보다 한국 경찰활동에 대해 낮은 신뢰를 보였다($B = -2.614, p < .05$).

여성 탈북자들은 남성 탈북자들보다 대한민국 경찰활동에 대한 낮은 신뢰를 나타냈다($B = -.614, p < .05$). 이 연구 결과는 성별이 경찰 신뢰에 독립적으로 영향을 끼치기보다는, 성별 변수가 다른 요인과 상호적으로 결합하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여성의 경우에는 남성보다 체포 또는 무력진압을 당할 확률이 낮기 때문에 여성이 남성보다 일반적으로 높은 경찰 신뢰도를 보인다[9]. 이 주장을 탈북자 사례에 적용하면, 탈북 후 한국 입국까지의 과정에서 여성 탈북자들도 남성 탈북자들만큼이나 불심검문 및 체포로 인해 강제복송당하는 등의 중국 공안과 부정적 접촉을 체험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분석할 수 있다. 남·북한에서 학교에 다녔던 탈북자들은 북한에서만 학교에 다녔던 탈북자들보다 대한민국 경찰에 대한 낮은 신뢰를 보였다($B = -.720, p < .05$). 남한정착 후 교육을 통한 공식적 사회화 과정이 경찰에 대한 부정적인 신뢰를 보이게 하는 계기로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자동차를 보유한 탈북자들은 한국 경찰활동에 대한 낮은 신뢰를 보였는데($B = -.820, p < .05$), 자동차 보유가 가능할 정도의 경제력을 갖춘 탈북자들은 자신의 재산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대한민국 경찰활동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Table 2. Linear Regression: Trust in the Police

Variables	Beta(B)	t-test	Std. Errors
Constant	9.30	8.3	(1.117)
<u>Independent Variables</u>			
Satisfied	-1.82	-1.6	(1.135)
Dissatisfied	-2.61	-2.0	(1.258)*
<u>Control Variables</u>			
Age	0.001	0.1	(0.010)

Sex	-0.61	-2.3	(0.264)*
Education level	-0.03	-0.1	(0.270)
School attendance	-0.72	-2.0	(0.347)*
Car ownership	-0.82	-2.2	(0.358)*
Income & expenditure	0.10	0.7	(0.144)
Language proficiency	-0.10	-0.4	(0.208)
Length of residence	0.01	0.1	(0.064)
Victim experience	0.10	0.2	(0.362)
Trust in people	0.74	2.8	(0.265)**
Crime reported	2.75	2.5	(1.082)*
Fear of crime	0.21	1.8	(0.119)
Preventive measures	-2.99	-3.4	(0.858)*
Crime trends	-0.36	-2.3	(0.159)*
F-Value			3.113 ***
R-Squared			0.216

*** $p < .001$, ** $p < .01$, * $p < .05$

주변 사람을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탈북자들은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한 탈북자들보다 경찰에 대해 높은 신뢰도가 나타났다($B = .743, p < .05$). 선행연구의 결과처럼[4], 주변 사람들에 대한 신뢰가 경찰활동에 대한 신뢰도로 전이된 것으로 해석된다. 범죄피해를 신고한 탈북자들은 경찰에 대해 높은 신뢰를 나타냈다($B = 2.759, p < .05$). 사기로 인한 피해규모가 크다고 생각한 탈북자들이 자신들의 범죄 피해를 경찰이 해결해 줄 것이라는 기대감에 신고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경찰에 대한 높은 신뢰도와 연관된 것으로 분석된다. 거주지역의 범죄발생 추세 또는 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가정에 추가로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탈북자들은 경찰에 대하여 낮은 신뢰를 보였다($B = -2.997, p < .01$). 또한 자신의 거주 지역에 범죄 발생이 증가한다는 의견을 낸 탈북자들은 경찰에 대해 낮은 신뢰를 나타내었다($B = -.368, p < .05$). 이들은 선행연구와 비슷한 연구결과이다[17, 28, 29, 41].

5. 결론

본 논문은 범죄 신고를 처리한 경찰관에 대해 피해자인 탈북자들이 느낀 만족감이 경찰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다. 선행연구의 결과처럼[12, 17, 18], 간접적인 경찰관 접촉 경험에서 만족 또는 불만을 나타낸 탈북자들보다 자신의 범죄피해를 처리하는 경찰관의 업무태도에 불만을 나타낸 탈북자들이 한국 경찰에 대한 낮은 신뢰를 보였다. 그리고 표현적 시각의 관점에서 설명한 것처럼, 주변 사람들에 대한 신뢰가 있다고 응답한

탈북자들은 경찰에 대한 신뢰도가 높았다. 도구적 시각의 관점으로, 거주하는 주택에 범죄예방 장치를 추가로 설치한 탈북자들과 최근 지역 사회 범죄 발생이 증가한다고 믿는 탈북자들은 경찰에 대한 신뢰도가 낮았다. 인구통계학적 변수인 “성별”, “자동차 소유”, “남한에서 교육”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동화이론에서 설명되는 변수인 남한말 숙련도와 체류기간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탈북자들의 경찰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대안은 다음과 같다. 출입통제 장치, 방범용 창살과 방충망 등과 같은 침입범죄 예방시설 보급 시범사업을 탈북자 담당 경찰서에서 직접 실시한다면, 탈북자들의 한국 경찰에 대해 신뢰도를 높이는 데 효과적일 것이다. 그리고 경찰관이 국내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탈북자들에게 사건접수와 처리 과정을 설명해 주는 등의 노력을 보인다면, 경찰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대부분이 사기 범죄 피해자인 탈북자를 대상으로 법률 및 지원제도에 대한 재교육도 범죄 예방차원에서 요구된다.

끝으로,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이 있음을 밝혀둔다. 먼저, 범죄피해 자료를 2차 분석했기 때문에 경찰접촉 유형에 따른 만족도와 경찰 신뢰도를 세분화하여 측정하지 못하였다. 또한, 특정 변수들과의 인과관계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탐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향후 보다 다양한 변수들의 활용과 최근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통해 본 연구에서 가지는 한계점들을 극복하고자 한다.

REFERENCES

- [1] J. H. Kang. (2016). Trust in Police among Citizens: Focusing on Patrol, Response, and Arrest Trust in Police. *Korean Association of Police Science*, 60, 31-57.
- [2] J. H. Ryu. (2012). The Analysis of Citizen's Perception toward the Police. *Journal of Social Science*, 38(3), 171-200.
- [3] J. Y. Lee. (2011). Police-Resident Contact and Trust in the Police. *The Research Institute of Social Science*, 18(3), 27-52.
- [4] H. S. Jang. (2018). A comparative study on the confidence in the Korean police between Korean citizens and Chinese people in Korea. *Journal of Korean Criminological Association*, 12(1), 81-94.
- [5] H. S. Jang. (2014). A Comparative study on the confidence in the police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Korean Police Studies Review*, 13(2), pp.

- 311-340.
- [6] H. S. Jang. (2013). Confidence in the police among citizens: Focusing on the expressive perspective of confidence in the police. *Korean Police Studies Review*, 12(2), 213-236.
- [7] E. G. Hwang. (2013). Determinants of Public Confidence in the Police among Korean Citizens in Seoul and Korean Americans in the Detroit Metropolitan Area, Michigan. *Korean Police Studies Review*, 12(4), 411-434.
- [8] J. K. Kim. (2013). The Effects of North Korea Defectors' Recognition with Effectiveness and Fairness of Policing on Police Support. *Korean Police Studies Review*, 12(1), pp. 63-86.
- [9] B. Brown, & R. Benedict. (2002). Perceptions of the police. *Policing: An International Journal of Police Strategies and Management*, 25(3), 543-580.
- [10] S. H. Kwon. (2011). Individual Attitudes toward North Korean Immigrants. *Journal of Korean Politics*, 20(2), 129-153.
- [11] K. Jung & C. Y. Choi. (2016). North Korean defectors' values, adaptation & satisfaction with their life in South Korea. *Korean Development Institute Review of the North Korean Economy*, 20(4), 41-63.
- [12] S. Brandl, I. Frank, R. Worden, & T. Bynum. (1994). Global and specific attitudes toward the police: Disentangling the relationship. *Justice Quarterly*, 11(1), 119-134.
- [13] J. Jackson and J. Sunshine. (2007). Public confidence in policing: A Neo-Durkheimian perspective. *The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47(2), 214-233.
- [14] I. Sun, R. Hu, D. Wong, X. He., & J. Li. (2013). One country, three populations: Trust in police among migrants, villages, and urbanities in China. *Police Social Science Research*. 42(6), 1739-1749.
- [15] W. Skogan. (2009). Concern about crime and confidence in the police: Reassurance or accountability?. *Police Quarterly*, 12(3), 301-318..
- [16] J. Jackson and B. Bradford. (2009). Crime, policing and social order: On the expressive nature of public confidence in policing. *The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60(3), 493-521.
- [17] M. Reisig & R. Parks. (2000). Experience, quality of life and neighborhood context. *Justice Quarterly*, 17(3), 607-630.
- [18] J. Schafer, B. Huebner, & T. Bynum. (2003). Citizen perceptions of police services: Race, neighborhood context, and community policing. *Police Quarterly*, 6(4), 440-468.
- [19] D. Chu, H. Song & J. Dombrink. (2005). Chinese immigrants' perceptions of the police in New York City.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Reviews*, 15(2), 101-114.
- [20] Y. Wu, B. Smith & I. Sun. (2013). Race, ethnicity and perceptions of police bias: The case of Chinese immigrants. *Journal of Ethnicity in Criminal Justice*, 11(1), 71-92.
- [21] M. Innes. (2004). Signal crimes and signal disorders: Notes on deviance as communicative action. *The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55, 317-334.
- [22] W. Warner & L. Stole. (1945). *The Social System of American Ethnic Groups*.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28] Chu, D. C. & Hung L. (2010). Chinese immigrants' attitudes toward the police in San Francisco. *Policing: An International Journal of Police Strategies & Management*, 33(4), 621-643.
- [23] Chu, D. C. & Hung L. (2010). Chinese immigrants' attitudes toward the police in San Francisco. *Policing: An International Journal of Police Strategies & Management*, 33(4), 621-643.
- [24] J. Khondaker, I. Mahfuzul, Y. Wu & G. Lambert. (2016). The views of Bangladesh immigrants on the police in New York City. *Journal of Crime and Justice*, 39(4), 528-549.
- [25] M. Correia. (2010). Determinants of attitudes toward police of Latino immigrants and non-immigrants. *Journal of Criminal Justice*, 38(1), 99-107.
- [26] D. Chu & H. Song (2015). A comparison of Chinese immigrants' perceptions of the police in New York City and Toronto. *Crime and Delinquency*, 61(3), 402-427.
- [27] J. J. Joo. (2008). A Study on the Trust of Public on Police. *Korean Association of Police Science*, 10(4), 329-352.
- [28] L. Cao, J. Frank & T. Cullen. (1996). Race, community context and confidence in the police. *American Journal of Police*, 15(1), 3-22.
- [29] J. Frank, G. Brandl, E. Worden & S. Bynum. (1996). Citizen involvement in the corporation of police output. *Journal of Crime and Justice*, 19(2), 1-30.
- [30] V. Webb & C. Marshall. (1995). The relative importance of race and ethnicity on citizen attitudes toward the police. *American Journal of Police*, 14(2), 45-66.
- [31] R. Roles, S. Moak & T. Bensel. (2015). Perceptions of police among Hispanic immigrants of Mexican origin in the southeast United States. *American Journal of Criminal Justice*, 41, 202-219.
- [32] Y. Wu, I. Sun & B. Smith. (2011). Race, immigration, and policing: Chinese immigrants' satisfaction with police. *Justice Quarterly*, 28(5), 745-774.
- [33] R. Davis & N. Hendricks. (2007). Immigrants and law enforcement: a comparison of native-born and foreign-born Americans' opinions of the police. *International Review of Victimology*, 14(1), 81-94.
- [34] J. O. Jang & J. H. Lee. (2006). A Study of Victimiza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Seoul: The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 [35] Ministry of Unification. (2019). The Recent Trends in North Korean Refugees. 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NKDefectorsPolicy/status/lately/ (dated on 2020. 02. 28).
- [36] C. M. Lee, J. C. Kim, S. C. Han, & H. J. Shin. (2010). A Study on the Crime Prevention Governance for North Korean Refugees in Korea. Seoul: North Korean Refugees Foundation.
- [37] Police Science Institutes. (2018). The 2018 Police Review.
- [38] E. G. Hwang & S. I. Han. (2016). Expressive and instrumental factors of public confidence in the police: A comparative study between Korea and Mongolia. *Korean Police Studies Review*, 15(4), 317-342.
- [39] P. Kennedy. (1998). *A Guide to Econometrics*. Cambridge, MA: The MIT Press.
- [40] D. Marquardt. (1970). Generalized inverses, ridge regression, biased linear estimation, and nonlinear estimation. *Technometrics*, 12(3), 591-612.
- [41] L. Ren, L. Cao, N. Lovrich & M. Gaffney. (2005). Linking confidence in the police with the performance of the police: Community policing can make a difference. *Journal of Criminal Justice*, 33(1), 55-66.

홍 문 기(Moon-Ki Hong)

[정회원]



- 2001년 2월 : 가천대학교 행정학과 (행정학사)
- 2003년 5월 : Sam Houston State Univ. 형사사법(형사사법석사)
- 2016년 3월 : Florida State Univ. 범죄학과(범죄학박사)
- 2017년 3월 ~ 현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조사연구원

- 관심분야 : 억제이론, 사형제도
- E-Mail : mkhong@kic.re.kr

박 중 선(Jongsun Park)

[정회원]



- 2001년 2월 : 가천대학교 행정학과 (행정학사)
- 2003년 2월 : 가천대학교 행정학과 (행정학석사)
- 2009년 12월 : Florida State Univ. 행정학과(행정학박사)
- 2011년 9월 ~ 2020년 2월 : 계명대학교 행정학과 조/부교수

- 2020년 3월 ~ 현재 : 가천대학교 행정학과 부교수
- 관심분야 : 지방행정, 공공관리
- E-Mail : pjs751101@gachon.ac.kr